

조선시대 도자(陶磁) 명기(明器) 기종 연구*

-왕실 능원묘(陵園墓) 출토품을 중심으로-

장 지 영**

목 차

- I. 머리말
- II. 국가 의례 변천에 따른 도자 명기의 종류와 수량 변화
- III. 전례서(典禮書)에 기록된 도자 명기의 기종별 특징
- IV. 능원(陵園) 출토 도자 명기의 기종 분류
- V. 맺음말

국문초록 | 본 연구는 국가 의례를 기록한 전례서(典禮書)의 시기별 변화 양상을 살펴본 뒤, 부장 명기 가운데 가장 많은 출토량을 나타내는 도자(陶磁) 명기의 제도적 변화를 주목하였다. 이는 왕실에 적용된 의례로 민간 사대부의 의례인 《가례(家禮)》와 구분된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

전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도자 명기에 관한 기록은 재질과 규격, 수량과 형태, 내용물과 용량, 규격에 이르는 상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도자 명기의 기종별 특징을 구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한 뒤, 도자 명기의 기종을 구분할 수 있는 실용적인 분류 기준안을 설정해보았다. 그리고

* 본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 (NRF-과제번호)(NRF-2021S1A5B5A17046937), 2023년 11월 24일 개최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정기학술대회 <조선시대 공예문화의 장면들>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 張志榮 국민대학교 명원박물관 전문연구원 ccy1203@kookmin.ac.kr
투고일: 2024. 4. 8. 심사완료일: 2024. 6. 25. 게재확정일: 2024. 6. 27.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4.46..157>

왕실 의례의 실제 적용 사례를 확인하고자 능원에서 출토된 도자 명기를 예로 기종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도자 명기의 기종 분류는 의례의 적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실제 능원 출토 도자 명기의 기종 분류를 시행해보으로써 모호한 부분이 있었던 일부 기종의 명칭을 고찰하여 의례 규정을 따라 용어를 부여해줄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의례와는 다른 용어로 출토품의 명칭을 규정해왔던 오류, 혹은 임의로 붙여진 기종 명칭에 따라 동일 기종에 각기 다른 용어가 사용되어왔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이를 통해 분류 기준안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 명기(明器)/부장 도자/조선시대 부장 의례/능원출토 도자 명기

I. 머리말

국가 의례를 기록한 전례서(典禮書)에는 오례(五禮)의 의식과 절차, 그리고 이에 사용되는 물품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중 무덤에 부장하는 각종 기물은 「흉례(凶禮)」의 ‘서례(序例)’ 도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장만을 위해 준비된 물품인 ‘명기(明器)’는 재질과 규격, 수량과 형태, 내용물과 용량, 규격에 이르는 세부 규정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례서에 기록된 부장 명기 가운데, 가장 많은 출토량을 나타내는 도자(陶磁) 명기를 주목하여 시기에 따른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설에서 확인된 도자 명기의 기종 및 형태를 파악한 뒤, 왕실 능원에서 출토된 도자 명기의 기종을 의례의 용어에 맞게 분류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연구는 그간, 의례와는 다른 용어로 출토품의 명칭을 규정해왔던 오류 및 임의로 붙여진 기종 명칭에 따라 동일 기종에 각기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국가 의례 변천에 따른 도자 명기의 종류와 수량 변화

조선 초부터 시행되었던 국가 의례에 관한 논의는 세종대(世宗代) 「오례(五禮)」를 통해 정리되기 시작한 뒤, 「오례」에서 다루지 않은 예법을 보완하여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편찬되었다. 이때 오례[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흉례(凶禮)·군례(軍禮)]에 중복 사용되는 기종은 도설을 생략하여 내용을 간략히 다루었다. 이것이 17세기까지 국가 의례의 기준으로 설정되어 도설에서 제외된 기종의 사용은 점차 축소되게 된다. 당시 정국을 주도한 사람 사대부들은 《가례(家禮)》의 관점에서 현실에 맞는 의례의 시행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조례 또한 현실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8세기, 영조(英祖)는 이를 반영하여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을 편찬하였는데, 「국조오례의」에서 생략된 기종이 명기의 종류에서 제외되면서 「오례」에서 다루어진 명기의 원형이 산실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사대부의 관점에서 임금의 의례 또한 사대부와 같이 《가례》를 따라야 한다고 본 것으로 왕권의 실추를 의미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정조(正祖)는 왕실의 권위를 전기 의례의 복원을 통해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조대 편찬된 『춘관통고(春官通考)』에는 역대 전례서를 정리하고 그간 생략하거나 사라져버린 전기의 예법을 대부분 복원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변천에 따라 변화된 명기의 종류와 수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전례서는 시기를 나누어 전-중-후-말기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¹⁾ 각 시기에 사용된 전례서를 바탕으로 명기의 종류와 수량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1) 「오례」를 전기, 『국조오례의』를 중기, 『국조상례보편』을 후기, 『춘관통고』를 말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명기의 종류는 『세종실록』 「오례」의 ‘의식(儀式)’과 ‘서례(序例)’, 『국조오례의서례』, 『국조상례보편』의 ‘본문’과 ‘도설’, 『춘관통고』 권80 흉례, ‘발인’ 조와 ‘원의명기도설’ 및 ‘보편명기도설’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표 1】 부장 명기의 기종 및 수량 변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연 번	『세종 실록』 「오례」 儀式	『세종 실록』 「오례」 序例	『국조 오례의 서례』	『국조 상례 보편』	『국조 상례 보편』 도설	『춘관 통고』 卷80 凶禮 發引	『춘관 통고』 原儀明 器圖說.	『춘관 통고』 補編明 器圖說
1	筩	筩	筩	筩	筩	筩/冪	筩	筩
2	瓦甕	嬰	甕	×	×	×	甕	×
3	瓦甗	瓦甗	瓦甗	甗	瓦甗	甗	瓦甗	甗
4	瓦竈	瓦竈	瓦竈	×	×	×	瓦竈	×
5	瓦釜	瓦釜	瓦釜	釜	瓦釜	釜	瓦釜	釜
6	瓦甑	瓦甑	瓦甑	×	×	×	瓦甑	×
7	瓦鼎	瓦鼎	瓦鼎	鼎	瓦鼎	鼎	瓦鼎	鼎
8	瓦尊	酒尊	酒尊	×	×	×	酒尊	×
9	瓦瓶	酒瓶	酒瓶	×	×	×	酒瓶	×
10	匏勺	匏勺	瓢勺	×	×	×	瓢勺	×
11	瓦爵	×	×	爵	爵	爵	爵	爵
12	瓦盞	盞	盞	盞	盞	盞	盞	×
13	盞	×	×	×	×	×	盞	盞
14	豆	×	×	豆	豆	豆	豆	豆
15	瓦簠	×	×	簠	簠	簠	簠	簠
16	瓦簋	×	×	簋	簋	簋	簋	簋
17	瓦特鐘	×	×	×	×	×	瓦特鐘	×
18	瓦鐘	×	×	銅鐘	銅鐘角槌	銅鐘	瓦鐘	鐘
19	瓦特磬	×	×	×	×	×	瓦特磬	×
20	瓦磬	×	×	磁磬	磁磬	磁磬	瓦磬	磬
21	瓦壺	×	×	瓦壺	瓦壺	瓦壺	瓦壺	壺
22	箎	×	×	箎	箎	箎	箎	箎
23	琴	×	×	琴	唐琴	琴	琴	唐琴
24	瑟	×	×	瑟	瑟	瑟	瑟	瑟
25	笙	×	×	笙	笙	笙	笙	笙
26	竽	×	×	×	×	×	竽	×
27	×	×	×	×	×	×	和	×
28	管	×	×	×	×	×	管	×
29	祝	×	×	祝	祝止	祝	祝	祝

30	敵	x	x	敵	敵簞	敵	敵	敵
31	節鼓	x	x	鼓	節鼓	鼓	節鼓	節鼓
32	瓦方響	x	x	x	x	x	瓦方響	x
33	笛	x	x	x	x	x	唐笛	x
34	洞簫	x	x	x	x	x	洞簫	x
35	簞簞	x	x	x	x	x	唐簞簞	x
36	牙箏	x	x	x	x	x	牙箏	x
37	大箏	x	x	x	x	x	大箏	x
38	琵琶	x	x	x	x	x	唐琵琶	x
39	教坊鼓	x	x	x	x	x	x	x
40	拍	x	x	x	x	x	拍	x
41	杖鼓	x	x	x	x	x	杖鼓	x
42	鄉簞簞	x	x	x	x	x	鄉簞簞	x
43	大琴	x	x	x	x	x	大琴	x
44	鄉琵琶	x	x	x	x	x	鄉琵琶	x
45	玄琴	x	x	x	x	x	玄琴	x
46	伽倻琴	x	x	x	x	x	伽耶琴	x
47	木工人	x	x	x	x	x	木工人	x
48	木歌人	x	x	x	x	x	歌人	x
49	彤弓	x	x	彤弓	彤弓	彤弓	彤弓	彤弓
50	彤矢	x	x	彤矢	彤矢	彤矢	彤矢	彤矢
51	羽	x	x	x	x	x	羽	x
52	簫	x	x	簫	簫	簫	簫	簫
53	威	x	x	x	x	x	威	x
54	竿	x	x	竿	竿	竿	竿	竿
55	甲	x	x	甲	甲	甲	甲	甲
56	胄	x	x	胄	胄	胄	胄	胄
57	干	x	x	干	干	干	干	干
58	戈	x	x	x	x	x	戈	x
59	x	x	x	x	x	x	楯	x
60	香爐	香爐	香爐	香爐	香爐	香爐	香爐	香爐
61	香合	香合	香合	香合	香合	香合	香合	香合
62	食案	食案	食卓	x	x	x	食卓	
63	瓦飯鉢	飯鉢	飯鉢	飯鉢	飯鉢	飯鉢	飯鉢	飯鉢
64	瓦匙櫟	匙櫟	匙櫟	匙櫟	匙櫟	匙櫟	匙櫟	匙櫟
65	瓦羹櫟	羹櫟	羹鉢	x	x	x	羹鉢	x

66	瓦饌櫟	饌櫟	饌櫟	×	×	×	饌櫟	×
67	瓦炙櫟	炙櫟	炙櫟	×	×	×	炙櫟	×
68	瓦蔬菜	蔬菜脯	蔬菜脯	×	×	×	蔬菜脯	×
	脯醢櫟	醢櫟	醢櫟				醢櫟	
69	食托	食托	食托	×	×	×	食托	×
70	匙	匙	匙	匙	×	匙	匙	×
71	筯	筯	筯	筯	×	筯	筯	×
72	蓋	×	×	×	×	×	蓋/竹柄	×
73	几	几	几	×	×	×	几	×
74	杖	杖	杖	×	×	×	杖	×
75	盥盤	盥盤	盥盤	×	×	×	盥盤	×
76	盥匜	盥匜	盥匜	×	×	×	盥匜	×
77	唾盂	唾盂	唾盂	×	×	×	唾盂	×
78	溷瓶	溷瓶	溷瓶	×	×	×	溷瓶	×
79	洩器	洩器	洩器	×	×	×	洩器	×
80	木奴婢	×	×	×	×	×	木奴婢	×
81	木鞍馬	×	×	×	×	×	木鞍馬	×
82	木散馬	×	×	×	×	×	木散馬	×
총	80	30	30	32	30	32	80/67	30
점	344		78	56/45/40		292/274		85

종합해보면, 전기에는 최대 80종 344점, 중기에는 30종 78점, 후기에는 최대 32종 56점을 왕릉에 부장하도록 하였으며 후기부터 소상(小喪)과 내상(內喪)으로 나누어 왕실 내부에도 위계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소상에는 45점, 내상에는 40점만을 부장하도록 하였다. 말기에는 역대 의례의 종합을 통해 전기 의례인 ‘원의도설’과 후기 의례인 ‘보편도설’을 구분하여 각각 80종 292점과 30종 85점을 부장하도록 하였다.

기종을 용도로 구분하여 보면, 음식물을 담는 저장기(筭·瓦甕·瓦甗)·각종 연회와 의례에 사용된 예기(瓦竈·瓦釜·瓦甑·瓦鼎·瓦尊·瓦瓶·匏勺·瓦爵·瓦盞·簋·豆·瓦簋·瓦簠·香爐·香合·食案·食托·几·盥盤·盥匜·唾盂·溷瓶·洩器)·의례에 빠지지 않고 동원되는 연악기(瓦特鐘·瓦鐘·瓦特磬·瓦磬·瓦壎·簫·琴·瑟·笙·竿·

管·祝·敵·節鼓·瓦方響·笛·洞簫·簞簞·牙箏·大箏·琵琶·教坊鼓·拍·杖鼓·鄉簞簞·大箏·鄉琵琶·玄琴·伽倻琴·군사 의례나 전쟁에 필요한 역기(彤弓·彤矢·羽·簠·戚·笄·甲·冑·干·戈·杖)·일상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기(瓦飯鉢·瓦匙櫛·瓦羹櫛·瓦饌櫛·瓦炙櫛·瓦蔬菜脯醢櫛·匙·筋·蓋)·일상을 보조하거나 특수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말 등을 묘사한 상형기(木工人·木歌人·木奴婢·木鞍馬·木散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

재질별로는 죽기, 도자기, 목기, 칠기 금속기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본고에서는 출토품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와기(瓦器)와 자기(磁器)로 제작된 도자 명기를 주목해보고자 한다. 도자로 제작된 명기는 시기별로 전례서의 기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류와 수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³⁾

2) 용도별 분류는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의 도설에 근거하여 동일한 명칭이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3) 장지영, 앞의 논문, 2023, pp. 79-80.

【표 2】 도자 명기의 기종 및 수량 변화

연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연번	『세종실록』 「오례」 儀式	『국조오례 의서례』	『국조상례 보편』	『춘관통고』 卷80 凶禮 發引	『춘관통고』 原儀明器圖 說.	『춘관통고』 補編明器圖 說
1	瓦甕(3)	甕(3)	×	×	甕(3)	×
2	瓦甗(2)	瓦甗(2)	甗(1)	甗(1)	瓦甗(2)	甗(1)
3	瓦甗(2)	瓦甗(1)	×	×	瓦甗(1)	×
4	瓦釜(2)	瓦釜(2)	釜(1)	釜(1)	瓦釜(2)	釜(1)
5	瓦甗(1)	瓦甗(1)	×	×	瓦甗(1)	×
6	瓦鼎(12)	瓦鼎(12)	鼎(1)	鼎(1)	瓦鼎(12)	鼎(1)
7	瓦尊(4)	酒尊(4)	×	×	酒尊(4)	×
8	瓦瓶(1)	酒瓶(1)	×	×	酒瓶(1)	×
9	瓦爵(1)	×	爵(1)	爵(1)	爵(1)	爵(1)
10	瓦盞(3)	盞(3)	×	×	盞(3)	×
11	瓦簋(2)	×	簋(1)	簋(1)	簋(2)	簋(1)
12	瓦簋(2)	×	簋(1)	簋(1)	簋(2)	簋(1)
13	瓦特鍾(1)	×	×	×	瓦特鍾(1)	×
14	瓦鍾(16)	×	×	×	瓦鍾(16)	×
15	瓦特磬(1)	×	×	×	瓦特磬(1)	×
16	瓦磬(16)	×	磁磬(1)	磁磬(1)	瓦磬(16)	磬(1)
17	瓦壺(1)	×	瓦壺(1)	瓦壺(1)	瓦壺(1)	壺(1)
18	瓦方響(16)	×	×	×	瓦方響(16)	×
19	香爐(1)	香爐(1)	香爐(1)	香爐(1)	香爐(1)	香爐(1)
20	瓦飯鉢(1)	飯鉢(1)	飯鉢(1)	飯鉢(1)	飯鉢(1)	飯鉢(1)
21	瓦匙櫟(1)	匙櫟(1)	匙櫟(1)	匙櫟(1)	匙櫟(1)	匙櫟(1)
22	瓦羹鉢(1)	羹鉢(1)	×	×	羹鉢(1)	×
23	瓦饌櫟(9)	饌櫟(9)	×	×	饌櫟(9)	×
24	瓦炙櫟(1)	炙櫟(1)	×	×	炙櫟(1)	×
25	瓦蔬菜脯醢 櫟(12)	蔬菜·脯· 醢櫟(12)	×	×	蔬菜脯醢櫟(12)	×
총	25종	16종	11종	11종	25종	11종
수	112점	55점	11점	11점	111점	11점

와기와 자기로 제작하도록 한 도자 명기는 저장기, 예기, 연악기, 용기로, 시기에 따라 기종과 수량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즉, 전기에는 최대 25종의 도자 명기가 부장되도록 하였고, 16세기에서 17세기에는 의례의 생략과 변형이 이루어져 16종의 도자 명기만이 다루어졌으며, 후기에는 11종만을 부장의 대상으로 삼았다. 18세기 말엽에는 전기의 의례가 복원되면서 이를 따를 경우, 25종의 명기를 부장하도록 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 가운데 도자로 제작된 명기의 기종을 각각의 기형적 특징과 함께 세부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전례서(典禮書)에 기록된 도자 명기의 기종별 특징

도자 명기는 가장 많은 수량을 확인해볼 수 있는 전기 의례를 기준으로 총 25종으로 파악되나 ‘서례’ 도설에는 21종의 도자 명기만을 다루고 있다. 도설에 기록되지 않은 도자 명기는 연악기 6종 가운데 경(磬)과 훈(壎)을 제외한 4종으로 특종(特鐘), 종(鐘), 특경(特磬), 방향(方響)을 말한다. 본 절에서는 이들 4종의 악기를 제외하고 21종에 관한 기록을 종합하여 앞서 살펴본 전례서의 기록에 따라 용도별로 저장기(豐·甗)·예기(竈·釜·甑·鼎·尊·瓶·爵·盞·簋·簠·香爐)·연악기(磬·壎)·용기(飯鉢·匙櫛·羹櫛·饌櫛·炙櫛·蔬菜脯醢櫛)로 나누어 기종별 특징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기종별 특징은 명칭과 내용물, 용량과 부장 수량, 규격과 환산규격 및 도설의 형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며, 지면의 한계에 따라 표로 처리하여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서술을 대신하고자 한다. 단 기록 가운데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세부 항목은 생략하고자 한다.

(1) 저장기

먼저, 저장기의 용도로 구분할 수 있는 도자 명기는 ‘앵(嬰)과 무(甗)’로 파악된다. 이들은 사후에도 필요한 음식물을 부장해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 기종의 특징과 도설을 【표 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 전례서를 통해 확인된 앵(嬰)·무(甗)의 특징

	앵(嬰)	와무(瓦甗)·무(甗)
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앵(嬰)은 『세종실록』 「오례」 ‘서례’ 도설에 ‘앵’으로만 기록하고 있으나, 「오례」 ‘의식(儀式)’에서는 ‘와옹(瓦甗)’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와무(瓦甗/瓦甗)’는 전기와 말기의 전례서에서 사용한 용어로 중기와 후기의 전례서인 『국조오례의서례』와 『국조상례보편』에는 ‘무(甗)’로만 기록됨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혜와 육장, 생각과 계피가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주, 술
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승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 2점, 후기 1점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경 4촌·8.24cm·동체경 7촌(후말기 7촌5푼)·8.24cm(8.65cm)·저경 4촌(후말기 4촌2푼)·14.2cm(15.45cm)·기고 8촌(후말기 8촌2푼)·16.48cm(16.89cm)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경 3촌4푼(4촌5푼)·7cm(9.27cm)·동체경 7촌5·15.45cm·저경 5촌5푼·11.33cm·기고 8촌·16.48cm
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연이 직립하고 견부가 넓게 벌어졌으며 측사면은 견부로부터 저부를 향해 사선방향으로 뺄어나가는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체경은 앵과 동일하나 기고가 약간 작고, 저경이 넓어 안정감 있는 형태. 후기에 죽기(竹器)로 제작된 소(簋)와 규격을 동일하게 만들도록 하여 구경이 전기에 비해 커진 것을 볼 수 있음. 덮개를 의미하는 맥(冪)을 덮어 부장하도록 함

4) 국조례는 주척(周尺)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1척을 20.6cm로 환산함. (문중양, 「세종대 척도의 탄생 : 주척과 황중척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vol.19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 참고)

【표 4】 앵(嬰)·무(罍)의 전례 도설

	『세종실록』 「오례」	『국조오례의』 서례』	『국조상례보편』 서례』	『춘관통고』	
앵 (嬰)	瓦甕(3)/嬰	甕(3)	×	甕(3)	
			제외		
무 (罍)	瓦甗/甗(2)	瓦甗(2)	瓦甗(1)	瓦甗(2)	
					
				원의명기 도설	보편명기 도설

(2) 예기


다음으로 오례에 사용된 각종 기물을 뜻하는 예기(禮器) 가운데 제기로 추정되는 조리기인 ‘와조(瓦竈)·와부(瓦釜)·와중(瓦甗)·와정(瓦鼎)·와준(瓦尊)’의 특징은⁵⁾ 다음 【표 5-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 고대(古代) 중국에서는 부뚜막을 상형으로 만들거나, 술을 금속기로 만들어 부장하였다. 이는 제사나 섬식 등에 사용되는 기물로 조선시대 명기 중 ‘조·부·중·정’과 같은 기물 또한 이러한 개념으로 부장된 것이라 추정된다.

【표 5】 전례서를 통해 확인된 조(竈)·증(甕)·부(釜)·정(鼎)의 특징

	와조(瓦竈)	와증(瓦甕)
용어	• ‘와조(瓦竈)’는 민간에서 풍로(風爐)	• ‘와증(瓦甕)’
용도	• 도기로 제작된 술	• 시루
수량	• 전기 2점, 후기 제외, 말기 1점	x
규격	x	x
기형	• 동체는 심발형으로 상단에 기물을 올려놓았을 때 화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산형의 구연을 이루도록 조각하였으며, 동체 하단부에는 불을 넣을 수 있는 방형의 화구를 만들어 놓았고, 하단부에는 삼족의 다리가 달린 형태로 제작됨	• 손잡이가 달린 심발형 동체에 바닥에 7개의 구멍이 뚫려있는 형태
	와부(瓦釜)	와정(瓦鼎) · 정(鼎)
용어	• ‘와부(瓦釜)’	• ‘와정(瓦鼎)’은 『국조오례의서례』에 서만 ‘정(鼎)’으로 기록
용도	• 도기로 제작된 술	• 술을 의미. 모든 전례서에서 다루고 있는 필수 부장 명기
수량	• 전기 2점, 후기 1점	• 전기 12점, 후기 1점
규격	• 구경 3촌-6.2cm·기고 2촌-4.1cm	• 구경 2촌-4.1cm·동체경 2촌5푼-5.2cm·깊이 1촌5푼-3.1cm
기형	• 와정에 비해 크게 제작	• 와부에 비해 소형 • 술의 모양은 뚜껑을 받칠 수 있는 술귀가 달린 것이 특징

【표 6】 조(竈)·증(甑)·부(釜)·정(鼎)의 전례 도설

	『세종실록』 「오례」	『국조오례의』 서례』	『국조상례보편』 서례』	『춘관통고』
조 (竈)	瓦竈(2)	瓦竈(1)	×	瓦竈(1)
		×	제외	×
부 (釜)	瓦釜(2)	釜(2)	瓦釜(1)	瓦釜(2)
		×		
증 (甑)	瓦甑(1)	瓦甑(1)	×	瓦甑(1)
		×	제외 (확인요)	×
정 (鼎)	瓦鼎(12)	鼎(12)	瓦鼎(1)	瓦鼎(12/1)
		×		

그 밖에 가례(嘉禮)와 빈례(賓禮)에도 사용된 준작(尊爵)의 기물인 ‘와준(瓦樽)·와병(瓦瓶)·와작(瓦爵)·와잔(瓦盞)·와보(瓦簋)·와궤(瓦簋)향로(香爐)’를 도자 명기로도 제작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각 기종의 특징과 도설은 다음 【표 7-8】과 같다.





【표 7】 전례서를 통해 확인된
준(尊)·병(瓶)·작(爵)·잔(盞)·보(簋)·궤(簋)·향로(香爐)의 특징

	와준(瓦尊) · 주준(酒尊)	와병(瓦瓶) · 주병(酒瓶)
용어	• ‘와준(瓦尊)’은 『국조오례의서례』 이	• ‘와병(瓦瓶)’은 『세종실록』 「오례」에

	후 ‘주尊(酒尊)’으로 불리다가 영조 대 제외된 기종임	서만 와병이라 하고, 나머지 전례서에서는 ‘주병(酒瓶)’으로 기록함	
용도	• 술, 물	• 술	
수량	• 전기, 중기 각 4점, 후기 생략 ⁶⁾ 말기 4점	×	
기형	• 구연이 외반되고 동체가 세장한 장신호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전기에 사용된 와병은 건부가 강조된 형태로 허리 부분은 갈록하게 들어간 매병의 형태를 띠다가 조선 후기에 옥호춘병의 형태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됨	
	와작(瓦爵) · 작(爵)	와잔(瓦盞) · 잔(盞)	
용어	• ‘와작(瓦爵)’은 「오례」에서만 사용된 용어로 중기 이후 줄곧 ‘작(爵)’으로 불림	• ‘와잔(瓦盞)’은 『세종실록』 「오례」의 용어로, 나머지는 모든 전례서에는 ‘잔(盞)’으로만 기록함	
재질	• 백토를 사용해 번조하도록 함	×	
수량	×	• 3개씩 부장, 후기에만 제외	
규격	• 구경 길이 2촌5푼-5.15cm·구경 너비 1촌5푼-3.09cm·기고 3촌-6.18cm	×	
기형	• 구연 양측에 기둥과 삼족을 포함하여 6cm가량의 크기로 제작된 소형의 기물임	• 구연이 직구를 이루며, 잔 받침은 굽지름 상당의 내저원각이 있는 형태로 잔과 한 쌍을 이루도록 함	
	와보(瓦簋) · 보(簋)	와궐(瓦簋) · 궐(簋)	향로(香爐) · 유대향로(有臺香爐)
용어	• 「오례」에만 ‘와보(瓦簋)’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나머지 전례서에는 모두 ‘보(簋)’라고 기록함	• 「오례」에서만 ‘와궐(瓦簋)’로 기록하고 있으며, 나머지 모든 전례서에는 ‘궐(簋)’라고 기록됨	• 「오례」와 『국조오례서』에는 ‘향로(香爐)’라 하였고, 후기 이후의 전례서에는 ‘유대향로(有臺香爐)’
재질	• 보는 백토를 사용하여 번조하도록 함	×	• 향로는 모든 전례서에서 자기로 제작
규격	• 구경 2촌7푼-5.56cm·너비 2촌4.12cm, 복경 길이	• 구경 2촌5푼-5.15cm·복원경 2촌7푼-5.56cm·	• 경 1촌5푼-3.09cm·동체 최대경 2촌4.12cm·기

	이 3촌-6.18cm, 기고 3촌-6.18cm	기고 3촌-6.18cm	고 2촌5푼-5.15cm
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형의 동체와 방형의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뚜껑 상면에 방형의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례(周禮)》의 주(注)에는 “보는 네모나고, 꺾는 둥글다.”고 기록 동체와 뚜껑 모두 타원형의 둥근 형태로, 뚜껑 상면의 손잡이 역시 둥근 형태로 제작되어 부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 도설에 따르면 동체 양측에 수직 방향의 귀를 부장하고 있으며 굽은 삼족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후기에는 삼족을 대신하여 굽을 높게 제작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됨

【표 8】 준(尊)·병(瓶)·작(爵)·잔(盞)·보(簋)·궤(簋)·향로(香爐)의 전례 도설

	『세종실록』 「오례」	『국조오례의』 서례』	『국조상례보편』 서례』	『춘관통고』
병 (鼎)	瓦鼎(1) 	酒瓶(1)	×	酒瓶(1)
	×	×	제외	×
준 (尊)	瓦尊(4) 	酒尊(4)	×	酒尊(4)
	×	×	제외	×
작 (爵)	瓦爵(1)	×	瓦爵(1)	瓦爵(1)
	×	×		
잔	瓦盞(3)	盞(3)	×	盞(3)

6) 『英祖實錄』 英祖 33年. “(전략)…더러 쓸데없는 것이 있다. …(중략)…그 쓸데없다는 것은 주준(酒樽)·주잔(酒盞) 같은 것이다.(…其不緊者…其無用者, 酒樽酒盞之類也.)”

(盞)		×	제외	×
보 (簋)	瓦簋(2)	×	簋(1)	瓦簋(2)
	×	×		
궤 (簋)	瓦簋(2)	簋(1)	簋(2)	
	×	×		
향 로 (香 爐)	香爐(1)	香爐(1)	有臺香爐(1)	
		×		

(4) 연악기

유교에서 음악(樂)은 사람의 성심을 함양하며, 간사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찌꺼기를 말끔히 정화시키는 의미로 예의 완성으로 보았다.⁷⁾ 이에 각종 연회와 의례에는 반드시 음악이 사용되었으며, 흥례에도 《예기(禮記)》의 기록에 따라 아악(雅樂)에 사용된 악기를 임금의 무덤에는 부장하도록 하였다.⁸⁾ 이중 도자 명기로 제작된 연악기인 ‘경(磬)’과 ‘훈(壎)’의 특징

7) 『論語』, 《泰伯》. “子曰,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論語集註』, 傳統文化研究會, 1990, p.155. “

8) 《禮記》喪大記. “君松槨, 大夫柏槨, 士雜木槨. 棺槨之間, 君容祝, 大夫容壺, 士容甗. 君里櫛虞簠, 大夫不里櫛, 士不虞簠.”

과 도설을 【표 9-10】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9】 전례서를 통해 확인된 경(磬)·훈(壎)의 특징

	경(磬)·자경(磁磬)	와훈(瓦壎)·훈(壎)
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례」를 제외하고 모두 자경(磁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조상례보편』 외 모두 와훈(瓦壎)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례」에만 ‘와기’로 제작하도록 하고 나머지 전례서에는 자기로 제작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훈(瓦壎)’은 『국조오례의서례』 길례, ‘악기 도설’에 “《주례도(周禮圖)》에 ‘훈(壎)’은 형상이 저울추【秤錘】와 같은데 흙으로써 만든다.”고 하여 실제 아악에 사용된 훈 역시 도기로 제작한 것으로 파악됨⁹⁾ • 흥례 ‘명기 도설’에서도 와기로 제작하도록 함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와 후기, 말기 모두 16점을 부장, 『국조오례의서례』에서만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점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倨) 길이 2촌4.12cm·거 너비 6푼-1.24cm·구(句) 길이 1촌5푼-3.09cm·구 너비 7푼-1.44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2촌4.12cm·중원경 1촌4푼-2.88cm·구멍 6개-상1,전3, 후2
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磬)’은 거(倨)와 구(句)로 구성되어 있고, 구를 경보다 길게 만들며 단단한 돌을 사용해 맑은소리가 나도록 함¹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 『國朝五禮序例』 卷1, 古禮, 雅部樂器. ‘圖說’ 壎. “《周禮圖》‘壎狀如秤錘, 以土爲之.’”

10) 『世宗實錄』 128卷, 「五禮」 古禮 序例. ‘樂器圖說’ “《周禮圖》云: ‘(전략)…넓고 좁은 것과 길고 짧은 것이 꼭 알맞게 되도록 한다. 그러나, 모두 두께는 2촌이다.’고 하였다. 혹은 말하기를, ‘돌의 성질이 단단하면 비록 두껍더라도 소리는 맑고, 돌의 성질이 단단하지 못하면 비록 얇더라도 소리는 탁(濁)하게 된다. 천구(天球)와 같은 것은 곧 옥경(玉磬)의 자연(自然)인 것이니, 이것이 경씨(磬氏)의 제작(制作)으로써 구애될 것인가.’하였다.”

【표 10】 경(磬)·훈(壎)의 전례 도설

	『세종실록』 「오례」	『국조오례의』 서례』	『국조상례보편』 서례』	『춘관통고』
경 (磬)	瓦磬(16)	磁磬(1)	磁磬(16)	瓦磬(16)
	x	x		
훈 (壎)	瓦壎(1)			
	x	x		

(5) 용기

다음으로 식생활과 의례, 연회 등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용기류를 살펴보면, ‘반발(飯鉢)·시접(匙楮)·갱접(羹楮)·찬접(饌楮)·적접(炙楮)·소채포해접(蔬菜脯醢楮)’을 들 수 있다. 각 기종의 특징과 도설을 살펴보면 【표 11-12】과 같다.

【표 11】 전례서를 통해 확인된 반발(飯鉢)·시접(匙楮)·갱접(羹楮)·찬접(饌楮)·적접(炙楮)·소채·포·해접(蔬菜脯醢楮)의 특징

	반발(飯鉢)	시접(匙楮)	갱접(羹楮)
용어	● ‘반발(飯鉢)’	● ‘시접(匙楮)’	● ‘갱접(羹楮)’
수량	● 1점	● 1점	● 1점
규격	● 구경 1촌5푼-3.09cm·동체경 2촌-4.12cm·기고 2촌5푼-5.15cm	● 구경 1촌9푼-3.91cm·깊이 1촌-2.06cm	x
기형	● 전기에는 구연이 직립하고 운두가 깊은 형태	● 내저원각이 둘러져 있으며 편평한 내저면에	● 구연이 수직 방향으로 직립하고 있으며, 반발

	로 상면 중앙에 손잡이가 달린 복발형 뚜껑을 덮도록 함. 후기에는 구연이 내만하고 동체 중앙부가 부푼 형태로 손잡이가 달린 뚜껑은 이전보다 크기가 작고 상면이 방추형으로 변화함	사선형 기벽을 가진 형태로 파악됨. 다만, 전기와 후기의 도설이 다르게 그려져 있어 후기와 말기에는 전기에 비해 굽이 넓어지고 기층선이 사선형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임	이나 잔보다 구경이 큰 특징을 나타냄. 굽지름보다 넓은 내저원각이 있고 이를 기점으로 동체 하부가 완만하게 꺾여 있는 형태를 띠
	찬접(饌碟)	적접(炙碟)	소채·포·해접(蔬菜脯醢碟)
용어	● ‘찬접(饌碟)’	● ‘적접(炙碟)’	● ‘소채·포·해접(蔬菜脯醢碟)’
수량	● 9점, 후기 생략	● 1점, 후기 생략	● 12점, 후기 생략
규격	● 구경 1촌9푼-3.91cm·깊이 1촌-2.06cm	×	×
기형	● 내저면에 원각이 없거나 굽지름보다 작은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로 추정됨. 기벽은 구연에서 내저면까지 완전한 곡면을 이루고 있어 시접과 구별되는 형태임	● 전이 달린 구연부와 내저면이 단차를 가지고 깊게 들어간 형태를 띠	● 굽 지름보다 넓은 내저원각이 둘러져 있으며, 접시의 기벽은 비교적 사선형에 가까운 형태를 나타냄

【표 12】 반발(飯鉢)·시접(匙楪)·갱접(羹楪)·찬접(饌楪)·적접(炙楪)·소채·포·해접(蔬菜脯醢楪)의 전례 도설

	『세종실록』 「오례」	『국조오례의』 서례』	『국조상례보편』 서례』	『춘관통고』
반발 (飯鉢)	瓦飯鉢(1) 	飯鉢(1) 		
	×			
시접 (匙楪)	瓦匙楪(1) 	匙楪(1) 		
	×			
갱접 (羹楪)	瓦羹楪(1) 	羹鉢(1) 		
	×	×	×	×
찬접 (饌楪)	瓦饌楪(9) 	饌楪(9) ×	×	饌楪(9) ×
	제외			
적접 (炙楪)	瓦炙楪(1) 	炙楪(1) ×	×	炙楪(1) ×
	제외			
소채포 해접 (蔬菜脯 醢楪)	瓦蔬菜脯醢楪(12) 	蔬菜脯醢楪(12) ×	×	瓦蔬菜脯醢楪(12) ×
	제외			

이상으로 살펴본 도자 명기의 특징에 따라 실제 출토품의 기종을 분류할 수 있도록 다음 장에서 기종의 분류 기준안을 설정해보도록 하겠다.

Ⅳ. 능원(陵園) 출토 도자 명기의 기종 분류

1. 도자 명기의 기종 분류 기준안 제시

그간 분묘에서 출토된 도자 명기의 기종 분류는 연구자나 보고자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으로 임의 분류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 장에서 살펴본 의례 도설과 기형적 특징에 근거하여 기종의 명칭을 분류할 수 있도록 실용적 방법의 분류 기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분류 기준은 현재 여러 보고서와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종의 명칭을 전례서에 맞게 수정해볼 수 있도록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형적 특징에 따른 1차 분류 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1차 분류는 기준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기종을 기준으로 ‘호류’·‘발류’·‘접시류’·‘기타 특수 기명류’로 나누어보고자 한다.

‘호류’는 동체가 부푼 형태의 기종으로, 기고가 구경보다 크고 동체 중상부가 부푼 형태를 ‘입호형’, 동체 중앙부가 부푼 형태를 ‘소호형’으로 구분하였다. 소호형은 구연이 외반된 형태와 내만된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의 보고서 및 연구들에서 내만된 구연을 가진 기물을 소호로 분류한 경우가 많아 이를 호류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발류’는 구연이 넓게 벌어진 형태의 기물로 크기의 대소에 따라 두 가지 기종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접시류’는 일반적으로 형태적 특징이 동일한 것을 중심으로 ‘단독형’과 ‘일괄형’으로 나누어진다.

이상의 1차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구분된 기물들을 의례서에 서술에 따라 상세 분류를 시행하여 원형에 맞는 명칭을 부여해보고자 한다.

먼저, 호로 분류되는 기물은 형태적 특징에 따라 키가 크고 건부가 강조된 ‘입호형’은 저장기에 해당하는 ‘앵무·소주준’으로 볼 수 있다. 이중 구경이

상대적으로 좁고 높은 경우, 혹은 구경이 직립한 경우는 ‘앵’으로, 구경이 넓고 외반되거나 구경이 낮게 제작된 경우는 ‘무’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때 무와 기형이 유사하나 도기로 제작된 경우는 오곡을 담는 ‘소’로 구분할 수 있다. ‘주준’의 경우는 기형이 세장하고 구연이 넓고 외반된 형태를 띠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기고가 작고 동체 중앙부나 중하단부가 강조된 기종인 ‘소호형’은 구연이 외반된 경우를 ‘향로’로, 구연이 내만된 경우를 ‘반발’로 구분되는데, 구연이 내만하여 반발과 형태적으로 동일하나 뚜껑에 구멍이 뚫려있는 경우 또한 ‘향로’로 볼 수 있다.¹¹⁾

발류는 운두가 깊고 구연이 넓은 기형으로 직경의 크기와 높이에 따라 직경이 큰 것을 ‘갱접’으로, 직경이 작고 기형의 비율이 1:1에 가까운 것을 ‘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접시류는 단일 구성을 나타내는 ‘단독형’과 유사한 형태의 세트 구성을 이루는 ‘일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단독형은 1점만을 부장하도록 한 ‘시접·적접’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중 구연부가 넓게 전의 형태로 펼쳐져 있으며 내저면이 편평하고 낮게 제작된 것을 ‘적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괄형으로 구분된 접시류의 경우, 세트의 구성으로 부장되도록 한 ‘찬접’과 ‘소채·포·해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밖에 잔탁의 경우는 부장된 잔의 수량에 따라 한 쌍을 이루어 부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수 기명류의 경우는 ‘와정·와중·와부·작·보·궤·경·훈’와 같은 기종으로 형태적으로 도설을 충실하여 기종 분류의 어려움이 적다. 이에 ‘와정’과 ‘와부’ 및 ‘보’와 ‘궤’와 같은 도설 상에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중심으

11)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서는 소호형에 ‘수기’를 포함하였으나, 전례서의 기준에 따라 도자로 제작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수기를 비롯한 관반, 관이에 관한 분류 기준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장지영, 박사학위논문, pp.9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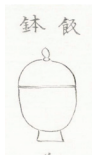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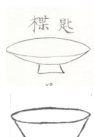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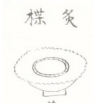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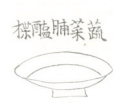

로 기종만을 살펴보면, ‘와정·와부’의 경우, 크기가 큰 것을 ‘정’, 작은 것을 ‘부’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보와 궤는 방형의 동체와 뚜껑을 가진 것을 ‘보’, 타원형의 동체와 뚜껑을 가진 것을 ‘궤’로 나누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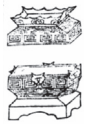

이상의 분류 방식에 따라 각 기종의 분류 기준안을 【표 13】과 같이 정리하였다.¹²⁾

【표 13】 명기의 명칭 부여를 위한 기종 분류 기준안

대분류 세부 유형	도설	의례 명칭	상세 분류 기준
호류 입호형		앵	○구경이 직립하거나 무에 비해 높이 솟은 모양 ○건부가 넓게 벌어져 하단부로 곧게 뻗어 내린 형태
		무	○구연이 짧거나 외반되었으며 저경이 비교적 넓은 모양 ○소와 무는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되나 재질과 내용물에 따라 기종을 구분
		소	○도기호 가운데 내부에 오코이 함께 출토되었다면 소로 분류
		주준	○구연이 넓고 짧으며, 대체로 외반된 특징 ○동체의 건부와 저부의 지름 차가 크지 않은 장신호의 형태
호류 소호형		향로	○구연 양 측으로 직립한 귀가 부착 ○동체가 둥근 원호형태를 띠며 경부가 직립하다가 구연부에서 살짝 벌어진 모양 ○왕건부에서 구연부까지 이어진 양이부호의 형태

12) 장지영, 박사학위논문, 2023, pp.119-123.

			<p>○뚜껑에 구멍이 뚫린 형태</p> <p>○굽은 대체로 높게 제작, 일부를 도려내 삼족을 형상화하거나, 생략</p>
		반발	<p>○구연이 직립한 발잔류와 구별된 기종</p> <p>○구경이 동체최대경보다 좁고, 동체 중하단부가 풍만한 형태로 소형의 원호형으로 제작</p> <p>○뚜껑은 손잡이를 중심으로 복발형을 나타내며 운두가 깊은 편</p>
발류		갱접	<p>○구연이 직립, 혹은 약간 사선형으로 벌어졌으며, 동체하단부가 완만한 굴곡을 이루는 것이 특징</p>
		잔	<p>○잔탁과 한 조를 이루어 제작</p> <p>○상대적으로 크기 작고 기고와 구경의 거의 동일한 비율을 나타냄</p>
접시류 단독형		시접	<p>○전기에는 내저면이 편평, 기벽이 측사면으로 곧게 뻗어 직구를 이룸</p> <p>○후기에는 내저면이 편평, 기벽이 수직으로 꺾여 올라간 형태</p>
		적접	<p>○구연부가 전 형태로 넓게 벌어져 기명의 내저면과 단차를 이룸</p> <p>○구경이 다른 접시류에 비해 약간 크게 제작</p>
접시류 일괄형		찬접	<p>○내저면에 원각이 없으며, 기벽은 완만한 곡면을 이루는 것이 특징</p>
		소채·포·해 접	<p>○찬접에 비해 구경이 넓고,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도록 하여 깊이감 있는 형태로 제작</p> <p>○기벽 내면에는 구연부와 가까운 지점에 원각이 둘러져 있는 것으로 구분</p>
		잔탁	<p>○공반 출토된 잔의 수량과 일치</p> <p>○내저면에 잔의 굽지름보다 약간 큰 크기의 원각이 둘러져 있고, 전반적으로 편평한 기형</p>

특수 기명류		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에는 삼죽에 솔귀가 부착 ○뚜껑과 한 조를 이루도록 제작됨 ○후기에는 구연이 넓고 동체 중앙부가 꺾인 형태로 사면에 귀가 달려 있으며 저부가 좁은 것이 특징
		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루【甗】의 형태로 바닥에는 7개의 구멍이 뚫려 있음
		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에는 사면에 손잡이가 부착 ○동체가 저부까지 둥근 형태를 나타내나 후기 도설에는 손잡이가 사라짐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형의 동체와 뚜껑
		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원형의 동체와 뚜껑

2. 능원 출토 도자 명기 기종 분류

현재까지 왕실 능원묘에서 도자 명기가 출토된 사례는 온녕군(溫寧君, 1407-1453), 전성군(全城君, 1490-1505), 광천군(廣川君, 1510-1588), 정휘옹주(貞徽翁主, 1593-1653), 소세손 의령원(懿昭世孫, 1661-1722), 화협옹주(和協翁主, 1733-1752), 영빈이씨(暎嬪李氏, 1696-1764), 화유옹주(和柔翁主, 1740-1777), 원빈홍씨(元嬪洪氏, 1766-1779), 문효세자(文孝世子,

1782-1786), 정조 건릉(正祖 健陵, 1752-1800), 청연공주(淸衍公主, 1754-1821)의 무덤으로 확인된다.

이들 능원묘에서 출토된 도자는 일반 기종의 명칭으로 1차 분류해보고, 실제 보다 4배 이상 작게 만든 소형 기물과 일상 기물 크기에 준하는 중형의 크기로 제작된 기물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을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왕실 능원묘 출토 부장 도자

피장자	신분	생몰연대	출토 도자	수량(점)	
				소형	중형
온녕군	太宗의 子	1407-1453	호류2, 접시류2		4
전성군	成宗의 子	1490-1505	유개호류3, 호1		7
광천군	全城君의 子	1510-1588	명기호류1, 명기발류4, 명기잔1조, 명기접시류3, 명기수기1조	12	
태안군	成宗의 孫子	1520-1592	명기뚜껑류2, 명기향로1조, 명기발류1, 명기잔1조, 명기접시류3	10	
정휘옹주	宣祖의 女	1593-1653	명기유개호1조, 명기호류3, 명기반발1, 명기발류1, 명기접시류4	12	
의소세손	莊祖의 長子	1750-1752	명기도기류2, 명기보1, 명기궤1, 호1, 유개소호2조, 유개잔1조, 합5조	4	17
화협옹주	英祖의 7女	1733-1752	명기유개호2조, 유개소호2조, 잔1조, 접시1, 합8조	4	22
영빈이씨	英祖의 後宮	1696-1764	명기유개호2조, 명기작1, 명기잔1조, 명기보1조, 명기궤1조, 명기향로1조, 명기반발1조, 명기발류1, 명기접시류11	25	
화유옹주	英祖의 10女	1740-1777	유개발1조, 잔1, 합1조, 소병1		6

원빈홍씨	正祖의 後宮	1766-1779	명기병1, 명기잔1조, 명기보1조, 명기궤1조, 명기편경1, 명기향로1조, 명기반발1조, 유개소호류3조, 유개합5조	12	16
문효세자	正祖의 子	1782-1785	도기호1, 유개발1, 합1조, 연적1		1
정조	22代 王	1752-1800	유개호6조, 도기류2, 명기병1, 명기작1, 명기잔1조, 명기보1조, 명기궤1조, 명기경1, 명기향로1조, 명기반발1조, 명기접시류6	26	12
청연군주	正祖의 妹	1754-1821	유개호4조, 유개호1	9	

이중 왕릉과 원묘에 해당하는 무덤을 하나씩 선정하여 출토된 도자 명기를 앞선 분류 기준에 따라 기종을 분류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왕릉의 경우, 최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면서도 가장 많은 구성이 출토된 (추)정조(正祖, 1752-1800)의 건릉 초장지 출토 도자 명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¹³⁾ 출토된 도자 명기는 총 15건 38점으로 대분류를 통해 호류 8건(입호형 6건·소호형 2건), 발류 3건(잔), 접시류 9건(단독형 1건·일괄형 5건/3건), 특수 기명류 6건(병·작·보·궤·부·정)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의례의 원형과 흡사한 기종을 제외하고 분류가 모호한 저장기류와 접시류만을 살펴보면, 호류 중 6건이 입호류로 분류되는데, 경부가 직립하고 구경이 비교적 작은 기형을 앵으로, 경부가 낮고 기고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안정적인 비례를 나타내는 것을 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뚜껑의 경우도 앵의 기고가 무의 기고보다 높게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는 접시류의 경우, 단독형인 기형은 내저원각이 없고, 굽지름이 넓으며 운두가 비교적 낮고 기측면이 안으로 말려 들어간 형태로 시접의 도설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일괄형으로 구분되는 5건의 접시는 굽 지름이 상대적으로

13) 국립문화재연구소, 「전 정조대왕 초장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5.

작고 내저면이 깊게 파여 완만한 곡면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설에 보이는 찬접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 밖에 굽지름보다 큰 내저원각이 있으나 적접에 비해 얇은 단차를 보이는 접시 3건의 경우, 1:1 비율로 제작된 발류인 3건의 잔과 함께 사용된 잔탁으로 구분된다. 특수 기명류 가운데 와기로 제작된 술의 경우는 기고가 큰 것을 정으로, 기고가 작고 구연이 넓은 것을 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5】

【표 15】 (추)정조 건릉 초장지 출토 도자 명기의 기종 분류

甕	甌	香爐	飯鉢	盞
				
匙櫛	饌櫛	瓦鼎	瓦釜	酒瓶
				
簠	簋	爵	磬	壺
				








다음으로 원묘 출토품의 경우는 영빈이씨(暎嬪李氏, 1696-1764)의 무덤인 수경원(綏慶園)을 예로 들고자 한다. 출토된 도자 명기는 총 13건 25점으로 대분류에 따라 호류가 4건(입호형 2건·소호형 2건), 발류가 2건, 접시류가

11건(단독형 2건·일괄형 2건), 특수 기종이 3건(제기류)으로 확인된다. 이를 의례 기준에 따라 상세 분류해본 결과, 입호형은 구경이 좁고 키가 상대적으로 크며 건부가 조금 더 높이 솟은 것을 앵으로, 구경이 크고 안정감 있는 비례를 나타내며 구연이 짧은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무로 나눌 수 있다. 접시류는 단독형의 경우, 시접과 적접만이 1점씩 부장되도록 하였는데 출토된 단독형 접시 가운데 직경이 넓고 내저원각이 얇은 것을 시접으로, 내저원각이 시접에 비해 강하게 구분되었으나 적접과 같은 단차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은 것을 잔과 함께 사용되는 잔탁으로 보았다. 일괄형 접시의 경우, 영빈이 씨의 무덤에서는 9점의 접시가 출토되었는데, 이들은 약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크고 작은 크기로 구분되고 있어 동일 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의례 규정에는 찬접을 9점, 소채·포·해접은 12점 부장하도록 하였으나, 18세기 후반에 시접을 제외한 모든 접시를 의례에서 제외한 제도적 변화에 따라 명기의 부장 수량을 의도적으로 감축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크기뿐 아니라 형태적으로도 크기가 작은 5건의 접시는 내저원각이 내저면 중앙부에 약하게 남아있고 측사면이 조금 더 안쪽으로 말아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도설에 내저원각이 그려지지 않은 찬접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직경이 이보다 조금 더 큰 4점의 접시는 구연부 가까이 비교적 눈이 떠는 내저원각이 있고 기측면이 사선형에 가깝게 벌어진 것으로 보아 도설 가운데 굽지름 보다 큰 원각이 둘러진 소채·포·해접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표 16】

【표 16】 영빈이씨 수경원 출토 도자 명기의 기종 분류

甕	甌	香爐	飯鉢	羹椀
				

盞·盞托	匙櫛	饌櫛	蔬菜·脯·醢櫛	簋
				
爵	磬	/		
				

이상의 방법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왕실 능원묘 출토 도자 명기의 기종을 분류해본 결과, 비교적 기형적 특징이 분명한 앵 무, 와중, 와정, 와부, 작, 향로, 경, 훈, 반발 등은 분류에 어려움이 없으나 의례에 맞지 않는 부장 수량을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는 발, 잔, 접시의 경우는 분류에 어려움이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 기준안에 따라 상세 분류를 시행해보면 접시는 단일 출토품과 일괄 구성으로 나누어 구경이 크고 운두가 얇은 것을 시접으로, 구경이 비교적 작고 기벽이 사선형에 가까운 것을 찬접으로, 운두가 깊은 것은 소채·포·해접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발의 경우 동체 저부가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구경이 직립한 것을 갱접으로,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구경과 기고의 비율이 1:1에 가까운 것을 잔으로 분류하였다. 앵과 무의 경우도 의례서에서 기술된 규격을 기준으로 기고가 큰 것을 앵으로, 작은 것을 무로 구분해볼 수 있다. 형태적으로는 도설에 따라 경부가 비교적 곧게 서있고, 견부가 넓게 벌어진 것을 앵으로, 경부가 상대적으로 낮고, 구경이 넓으며 견부에서 저부까지 사선형에 가깝게 떨어지는 것을 무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뚜껑을 의미하는 먹의 형태를 보면, 중앙부가 높게 솟아 있는 것을 앵의 뚜껑으로, 상부가 비교적 낮거나 편평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무의 뚜껑으로 구분된다.

다만, ‘광천군 묘’의 경우, 발류에 해당하는 기종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당의 《통전》에서 언급된 소, 옹과 함께 부장한 찬기류로 판단되어 도설과 기형이 가장 유사한 껍접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분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17-18】과 같다.¹⁴⁾

V. 맺음말

본 연구는 부장 명기 가운데 가장 많은 출토량을 나타내는 도자 명기를 주목하여 그간 연구자별로 임의 분류되어온 명기의 기종 명칭을 원형에 근거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기종의 분류 기준안을 제시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기종의 분류 기준은 조선시대 편찬된 전례서를 종합하여 기종별 기형적 특징을 파악한 뒤, 출토품의 기형적 특징에 따라 대분류된 기종의 상세 분류 기준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왕실의 능원에서 출토된 도자 명기의 기종 분류를 시도해보았는데, 이때 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유사 유형의 기종까지도 의례의 원형에 맞는 명칭을 부여해보았다.



이를 통해 전례 도설에 근거한 분류 기준에 따라 왕실 능원묘 출토 도자 명기의 기종 분류를 시도해보았다. 그 결과, 기종 분류 기준안의 실용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으며, 향후 민간 분묘에서 출토된 도자 명기의 기종 분류를 통해 그 활용 범위를 확대해나가고자 한다.

14) 장지영, 박사학위논문, p. 144. 앞서 각주12)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의 학위논문에서는 ‘관반’, ‘관이’ ‘수기’를 포함하여 기종을 분류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각각 적접, 잔과 잔탁으로 재분류하였다.

【표 17】 왕실 능원묘 출토 도자 명기 기종 분류 결과 (온녕군~의소세손)

명칭	오례 /오례의	온녕군	전성군	광천군	태안군	의소 세손
甕		 중형(1)	 중형(2조)	×	 소형(1)	 (용기1)
瓦甔		 중형(1)	 중형(1조)(1)	 소형(1)	 소형(1)	
筩		×	×	×	×	×
瓦甔		×	×	×	×	 소형(1)
瓦鼎		×	×	×	×	×
瓦釜		×	×	×	×	 소형(1)
酒瓶		×	×	×	×	×
瓦爵		×	×	×	×	×

瓦盞		x	x	  소형(1조)	  소형(1조)	x
簋		x	x	x	x	 소형(1조)
簋		x	x	x	x	 소형(1조)
磬		x	x	x	x	x
壺		x	x	x	x	x
香爐		x	x	x	 소형(1)	x
瓦飯鉢		x	x	 소형(1조)	x	x
瓦匙楪		 중형(1)	x	 소형(1조)	x	x
瓦羹楪		x	x	  	 명기(1)	x

				 소형(4)		
瓦饌		x	x	x	 명기(3)	x
炙楪		x	x	x	x	x
蔬菜 脯· 醃楪		 중형(1)	x	 소형(2)	x	x

【표 18】왕실 능원묘 출토 도자 명기 기종 분류 결과 (화협옹주~청연공주)

명칭	화협옹주	영빈이씨	원빈홍씨	문효세자	정조	청연공주
甕	 소형 (1조)	 소형(1조)	x	x	 소형(3조)	 소형(3조)
瓦甌	 소형 (1조)	 소형(1조)	x	x	 소형(3조)	  소형(1조)(1)
筩	x	x	x	 중형(1)	x	x

瓦甌	×	×	×	×	×	×
瓦鼎	×	×	×	×	 소형(1)	×
瓦釜	×	×	×	×	 소형(1)	×
酒瓶	×	×	 명기(1)	×	 소형(1)	×
瓦爵	×	 명기(1)	×	×	 소형(1)	×
瓦盞	×	 소형(1조)	 명기(1조)	×	 소형(3조)	×
簋	×	×	 소형(1조)	×	 소형(1조)	×
簋	×	 소형(1조)	 소형(1조)	×	 소형(1조)	×
磬	×	×	 소형(1)	×	 소형(1)	×

壚	x	x	x	x	 소형(1)	x
香爐	x	 소형(1조)	 소형(1조)	x	 소형(1조)	x
瓦飯鉢	x	 소형(1조)	 소형(1조)	x	 소형(1조)	x
瓦匙櫈	x	 소형(1)	x	x	 소형(1)	x
瓦羹櫈	x	 소형(2)	x	x	x	x
瓦饌	x	 소형(5)	x	x	 소형(5)	x
炙櫈	x	 소형(1)	x	x	x	x
蔬菜 脯 醢櫈	x	 소형(4)	x	x	x	x

참고문헌

문헌

『論語』,
《禮記》
《周禮》
《家禮》
『世宗實錄』 「五禮」
『英祖實錄』
『國朝五禮儀序例』
『國朝喪禮補編』
『春官通考』

학위논문

장지영, 「조선시대 부장(副葬) 도자(陶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김영시, 「朝鮮時代 國家典禮書 研究」,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송진욱, 「朝鮮王室의 明器 기록」,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연구논문

장지영, 「조선시대 명기(明器) 부장(副葬) 의례의 이원적 성격과 도자(陶磁) 명기의 사용 양상」, 『역사 속의 인구변동』 미술사부, 제 66회 전국역사학대회 자료집, 2023.
_____, 「명기(明器)의 개념과 연원 고찰 -중국 삼대(三代)에서 송대(宋代)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vol.60,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3.
문중양, 「세종대 척도의 탄생 : 주척과 황종척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vol.19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
최순권,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명기」, 『조선시대 명기』, 국립공주박물관, 2019.

전나나, 「조선 왕실 명기의 변천 명기에 대한 문헌과 출토품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103호, 한국역사연구회, 2017.

장남원, 「조선시대 喪葬 공예품의 의미와 구성: 서울경기 지역 民墓埋納品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4, 2010.

이지현, 「朝鮮時代 明器의 연구: 白磁明器를 中心으로」, 弘益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0.

보고서 및 도록

국립문화재연구소, 「전 정조대왕 초상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5.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릉, 왕실의 영혼을 담다』, 2016.

사진 출처

국립고궁박물관

연세대학교박물관

Abstract

STUDY OF TYPES OF FUNERARY CERAMIC VESSELS IN
JOSEON DYNASTY; FOCUSING ON EXCAVATED ITEMS
FROM ROYAL TOMBS (*NEUNG, WON, MYO*)

CHANG CHIYOUNG (CHANG, CHI YOUNG)

This study examines changes by period in books that record national ceremoni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policy changes regarding funerary ceramic vessels, which are the most frequently excavated items among burial goods. The national ritual was specifically implemented by the royal family and exhibits distinct changing patterns compared to that of scholar-officials, known as garye, the Family Rites of Zhu Xi.

The records of funerary ceramic vessels in the book on national rituals detail regulations regarding their material, size, quantity, shape, content, and volume. This study synthesizes and organizes the distinct qualities of each funerary ceramic vessels by type and suggests practical classification criteria that help differentiate each type of vessel. To identify the original execution of royal rituals, this study used excavated funerary ceramic vessels from royal tombs for the classification of types.

This sort of comprehensive classification system is crucial fundamental data for understanding the real-life implementation of funerary rituals and their shifting aspects. Some of the previously ambiguous names in vessel types can be reconsidered and given proper terminology that fits the rules

for state rites by utilizing this data and applying the criteria to evaluate authentic burial vessel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viable solution to previous issues such as inaccuracies in naming excavated items and the arbitrary assignment of multiple names to a single vessel type. In doing so, the suggested in-depth criteria in this research prove to be highly effective.

Key Words : *Myeong-gi*(明器)/ burial ceramics/ burial rituals of Joseon Dynasty/ grave ceramics/ the tombs of royal family.